

보일공업(주)

미얀마 정부와 MOU 체결



보일공업(주)(회장 정정애)은 지난 10월 15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얀마는 경제를 개방한지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새로운 축산 정책을 입안하면서 축산 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축산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일공업(주)은 미얀마 정부에 산란계 5천수 규모의 계사를 무상 기증하면서 내년 2월까지 완공키로 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양계사업팀, 2016년 힘찬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心機一轉)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대표 유종하, 이하 CJ) 양계사업팀이 고객 만족과 사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 먼저 CJ는 지난 16일 양계 컨설팅 능력 향상을 위하-

여 양계 PM 권혁진 부장 및 양계 R&D 신동훈 박사 그리고 사업팀 전원이 인천연구소에서 '2015년 하반기 양계 인тен시브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2016년 시장 환경전망 및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적용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만을 엄선하여 학습하는 시간이었다. 또 CJ는 산란계 사육수수 7,000만 수 돌파로 향후 수익성 향상이 곧 농장의 경쟁력임을 직시하고 수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제품 전략 그리고 고객 수익창출을 위한 컨설팅 능력 향양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CJ 양계사업팀장 김모환 부장은 "이번 2015년 하반기 양계 인тен시브 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과 농장 수익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고민하며 나온 시간이다"며 "CJ 양계사업팀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보니 노력이 헛되지 된 것 같지 않아 감사하고, 앞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양계 농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CJ는 계란 소비 증진을 위해 2015 전국 양계인 대회,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등 큰 행사마다 참석하며 'CJ 프레시안 알짜란 증정 행사' 진행을 통해 계란 소비 확대에 힘썼다. 당시 많은 고객들은 뜻밖의 선물에 즐거워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의 양계노트' 발간

한국양계연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9월 1일 '김영환의 양계노트 – 채란계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원리' 발간했다. 이 책은 김영환 소장이 1955년 축산공부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의 현장경험



구입문의 : 한국양계연구소 02-458-0752~3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차단 방역에 올인!!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대표이사 배수한, 이하 서울사료)는 매월 ‘품질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공장별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료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과 품질관리현황 및 외부현황 공유 등의 정보 교환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회의는 특별히, ‘공장 방역/소독 강화’를 주제로 삼았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부터 HPAI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사료 전 사업장에서는 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장 방문자 출입시 대인 소독/방역 강화, 농장 방문자 휴대용 대인 소독기 구비, 방역장비 확인 및 공장 내부 소독,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 운영, 출입 차량 바퀴 집중 소독, 일일 방역활동대장 관리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동절기 소독 장비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업무도 실시한다.

(주)팜스코

창립 42주년 기념행사 실시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는 지난 10월 9일 전북 무주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2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주)팜스코는 정학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료 사업, 신선식품 사업, 계열화 사업, 육가공 사업, 옥수수 건조 유통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창조’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주)팜스코이기에 이번에 마련된 창립42주년 기념행사는 더욱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42주년’ 기념 문구가 적힌 벽면에 손도장을 찍으며 조금씩 행사에 물들어 갔다. 그리고 그 열기는 1부 오프닝으로 이어지며, (주)팜스코 창립42주년 기념행사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오프닝에서는 뜨거운 함성으로 본부별 팜스코 가족들이 소개되고 이어서, (주)팜스코 4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공헌이 큰 구성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체리부로

CCM(소비자중심경영) 교육 실시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2일 월례조회에



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리부로,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CCM(소비자중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체리부로는 ▲ 2013년 CCM도입 및 인증 ▲ 2014년 CCM 활용 및 운영 ▲ CCM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2016년 CCM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의미 ▲ 체리부로 CCM 제도 운영 현황 ▲ CCM 제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CCM 홍보 현황 등으로 이루어졌다.

바이오민

아시아 영양 포럼 개최

사료 첨가제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민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순회 포럼 기간중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 김포롯데시티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바이오민사는 동물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30년간



곰팡이독소 위험관리 분야 및 장건강 분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도전, 기회, 성공’을 주제로 마

이코톡신, 장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마쳤다.

올텍바이오코리아

2015 올텍순회세미나 개최



올텍바이오코리아(대표 예재길)는 지난 20일 서울 노보텔에서 ‘2015 올텍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2001년 국내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올텍바이오코리아는 매년 올텍세미나를 본사와 함께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순회세미나는 ‘현대 축산업에서의 유기태 미네랄의 중요성 및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에 임했다. 이번 강연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미네랄 공급의 중요성 및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올텍은 35년 전통을 자랑하며 128개국에 진출, 전 세계에서 4,2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8년까지 인수합병 등을 통해 40억불 매출규모를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